

대한 양계협회

소식

'91 한국양계박람회 일정 확정 10월10~12일, 올림픽공원에서

'91 한국양계박람회(추진위원장 오봉국)가 오는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본회가 주최하고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박람회는 선진 양계산업화 진입, UR협상 대응책 모색, 양계산업 미래상 제시, 양계산물 우수성 홍보 등을 목적으로 양계인, 농축산업 종사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람회에서는 선진양계기법 전시, 고품질 양계산물 생산방안 제시, 양계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상품화, 양계인의 의식제고 방안 모색 등을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초중고생 대상 양계산물 우수성 표어 공모 △홍보포스터 공모 △닭고기요리 솜씨대회, 피부미용 세미나 △다산계 심사 경진대회 △우수양계인 선발 △계란먹기대회 △농악경연대회 △양계업 국제경쟁력 제고 심포지엄 △채란인, 육계인 대회 △투게시범 △시민 닭싸움 챔피언 선발 △병아리 사육, 관찰일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닭품종, 계란 및 가금류의 알, 닭 부화과정, 가금류의 모형, 닭사육시설, 가공식품, 사료 및 약품 등을 전시한다.

본회 양계업 구조개선 의견 제출 '92~2001년까지 신규 및 기존사업 투·융자방안 제시

본회는 정부가 92년부터 농수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세액 전액을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하여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토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에 대하여는 축산물 관세와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서 조성되는 재원조성의 비율에 따라 지원토록 되어 있어 이에대한 양계업 구조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본회가 제출한 92년부터 2001년까지 투·융자방안은 10년간에 걸쳐 양계산업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는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되어 있다.

신규사업은 △도매시장내 양계산물 공판장 6개소 설치 △노계처리 전문도계장 5개소 설치 △양계전문 연구소 설치 △산학협동에 의한 조사연구개발사업 30건 △자가배합사료 20개소 설치 △양계산물 수출전문업체 육성 등이다.

기존사업을 확대지원토록 한 분야는 △계란집장 120개소 설치 △양계단지 80개소 설치 △사육시설 개선 6천개소 지원 △닭계열화생산 16개소 지원 △닭고기, 계란 수급조절사업 △닭경제능력검정 및 계군혈청검사산업 등이다.

전업규모 축사 모델 제시 무창, 개방, 고상식 3가지 유형

본회는 축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업규모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모델 개발사업에 양계분야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란계사와 육계사로 나누어 산란계사중 육추·육성사는 무창으로 평면 직립식 4단4열 배치를 제시하였고, 성계사는 무창계사, 유창 또는 개방계사, 고상식 계사의 3가지 유형을 농가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창계사는 계분벨트가 설치된 직립식 케이지를, 유창계사는 스크래퍼 시설을 한 계단식 케이지를, 고상식 계사는 1층은 계분저장소로 사용하고 2층은 계단식 케이지를 설치, 닭을 사육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뇨처리시설을 육추·육성사와 무창계사는 별도 건조시설이 필요없이 발효시설만 설치하고, 유창계사에서는 건조발효 보관시설이 필요하다 고상식 계사의 경우 처리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육계사는 1동당 1만수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여 육성사에서 육추까지 하면서 점차적으로 면적을 조절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계분처리의 경우 별도의 처리시설은 필요치 않으나 창고형태의 퇴비사를 설치하여 보관중 눈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계속 추진 조세감면법의 부당성 헌법재판소에 제소

본회를 포함하여 7개 축산관련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계속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양계 및 양돈, 낙농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 및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징수된 부가세를 농어촌발전기금에 편입시켜 농수산 구조개선에 전액 사용한다는 정부 방침은 실질적으로 양축가에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협의회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토록 되어 있음에도 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농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에 반영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축산업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부당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소기로 하였다.

제6회 가공식품전시회 개최 본회 계란, 닭고기 전시



국내 생산여력이 풍부한 농·수·축·임산물의 가공식품 전시홍보로 부존식량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수입에 대처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개최된 제6회 가공식품전시회에 본회가 참가 닭고기 및 계란을 전시하였다. 지난 5월6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63빌딩 글로리아룸에서 본회를 비롯한 식품업체, 연구원 등이 참가 각종 가공식품을 전시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본회에서는 천호인티그레이션의 닭고기 가공육, 동부축산의 요드란, 계림축산의 크린에그를 전시하여 이들 제품과 양계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가축유전자원협의회 구성 무절제한 가축유전자원 수입 억제키 위해

본회를 비롯한 종축개량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유전자원 수입업체는 가축유전자원수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가축개량과 관련된 정액, 수정란, 종축 등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엄격한 수입기준을 정해 농가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현재 유전자원은 수입추천 품목이나 특정한 수입원칙이 없고 UR협상 등에 따라 무절제하게 수입될 소지가 있어 민간차원의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입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한일농원 아바에이카 경제성 우수 제31회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완료

제31회 육용계 경제능력검정에서 한일농원 아바에이카가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품종이 출품하여 6주 경제성(시판초생추가격 적용)은 한일농원 아바에이카가 860원, 타탐사에서 출품한 타탐이 859원, 삼화농원 하이브로가 847원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었다. 6주령 사료요구율은 하이브로가 1.869:1, 로스가 1.872:1, 아바에이카가 1.886:1을 나타내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계란거래소송 재판 방청 겸해

5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계란거래소송 재판을 방청한 후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계우회별로 악덕상인을 선

별하여 이를 취합, 전양계인이 악덕상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4월 계란거래에서 협회 기준가격과 수취가격이 3원 이상 차이가 난 경우 이를 소급하여 받기로 하였다.

한편 일부지역에서 생산량이 급증하여 계란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사육규모가 증가되는 원인을 다음 월례회에서 분석하기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금년 복경기 분석



5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아리가 부족되지 않음에도 가격은 오르고 있어 부화업자들이 단합에 의해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호남지역 육계시세가 중부권 보다 항상 50~100원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호남지역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복병아리 입추에 대비하여 금년 복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불황은 자명한 일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 다른 느낌을 받기도 해 금년도 복경기는 극심한 불황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한편 최근 유원지를 중심으로 왕병아리로 사육한 토종닭과 핑 등의 선호도가 높아 의외로 육계 소비가 부진할 우려가 높다는 견해도 높았다.